



서 “저들을 안 죽였으면 내가 죽었다”고 울부짖는 클라이드는 그가 잔인한 살인마가 아니라 나약한 인간이었으며, 결국 힘든 세상에서 일탈을 꿈꿨던 어린아이였을 뿐임을 웅변한다. 젊음의 광기와 감각적 사랑을 넘어 내면의 갈등과 심리적 고뇌까지 꺼안으며 작품에 깊이를 더해주는 장면이다.

시대물 위주의 전작들만큼 장중함은 없지만 프랭크 와일드혼 특유의 감미로우면서도 강렬한 음악도 제 몫을 다한다. 재즈와 컨트리, 블루스를 넘나들며 1930년대 미국의 감성을 불어넣으면서도 한국 팬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대중적 멜로디와 클라이맥스의 폭발력은 보니와 클라이드의 철없는 모험에 무게를 더하고, 덧없는 사랑이야기에 짙은 여운을 남긴다.

함께 행복할 수 없기에 함께 죽기를 택했던 무모한 사랑은 저 아이들에게 내일이 없기에 가능했던 것 아닐까. 늘 내일을 걱정하는 어른들로서는 “우리에게 낭만은 없다”. 오늘 의 낭만을 덮고 늘 내일을 향해 뛰다. 무엇을 위한 질주인지도 모른 채. 보니와 클라이드의 비극이 마냥 비참해 보이지는 않는 것도 그래서다. 낭만으로 포장된 비극은 차라리 아름답다워 보이니까.

글 유주현 객원기자 yjjoo@joongang.co.kr

사진 엠뮤지컬아트

칼리토 카르발료사전

10월 12일~11월 12일 서울 종로구 삼청로 국제갤러리, 문의 02-735-8449

서로가 서로를 견뎌준다는 것



육중한 나무 전신주가 공중에 비스듬히 떠 있다. 아니, 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서로 엇갈린 곳을 향하는 전신주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서로를 의지한 채 이를 악물고 서 있다. 브라질 상파울루 출신의 설치작가 칼리토 카르발료사(52)의 작품 ‘살라 데 에스페라(Sala de Espera: ‘대기실’이라는 뜻)다. 상파울루 현대미술관 개관 기념작으로 선정돼 미술관에 설치됐던 작품으로, 이번 첫 내한에 맞춰 국제갤러리 3관에 맞도록 새롭게 구성했다. 건축을 전공한 작가는 건물이 지닌 심리적 측면과 그곳에 주거하는 인간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작품을 만들어 왔다. 이번 작품에서는 8~12m짜리 전신주를 서로 엇갈리게 공중에 교차시킴으로써 삶의 가벼움과 죽음에 대한 무게를 실감케 한다. 글 정형모 기자, 사진 국제갤러리, photo Keith Park

푸에르타 부르타 오리지널 내한공연

10월 11일~12월 31일 잠실종합운동장 내 FB빅탐시어터, 문의1544-1555

뉴욕커 사로잡은 환상 퍼포먼스



무대와 객석이 함께 뛰고, 무너지고, 부서지는 색다른 공연이 아르헨티나에서 날아왔다. 2002년 국내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퍼포먼스 ‘델 라 구아다’ 팀의 새로운 작품이다. 스토리 위주의 공연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공연 문화를 창조한 연출자 디키 제임스와 음악감독 게비 커펬이 만들어낸 또 다른 화제작이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뉴욕에서 장기공연되는 등 전 세계를 돌며 인기몰이 중이다.

‘푸에르타 부르타’는 스페인어로 ‘잔혹한 힘’이라는 뜻. 삭막한 도시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야 하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를 모티브 삼아 절망과 승리, 환희에 이르는 다양한 감정들을 화끈한 음악과 춤, 짜릿한 아크로바틱과 스펙터클한 무대 디자인을 총동원해 감각적으로 표출한다. 관객의 머리 위와 옆 플로어가 무대가 되는 독특한 공간연출로, 관객은 지정석 없이 스탠딩으로 공연장 내부를 이동하며 환상의 무대에 동참한다.

글 유주현 객원기자, 사진 컴퍼니R